2020

# 우간다공화국 개황

Republic of Uganda




외 교 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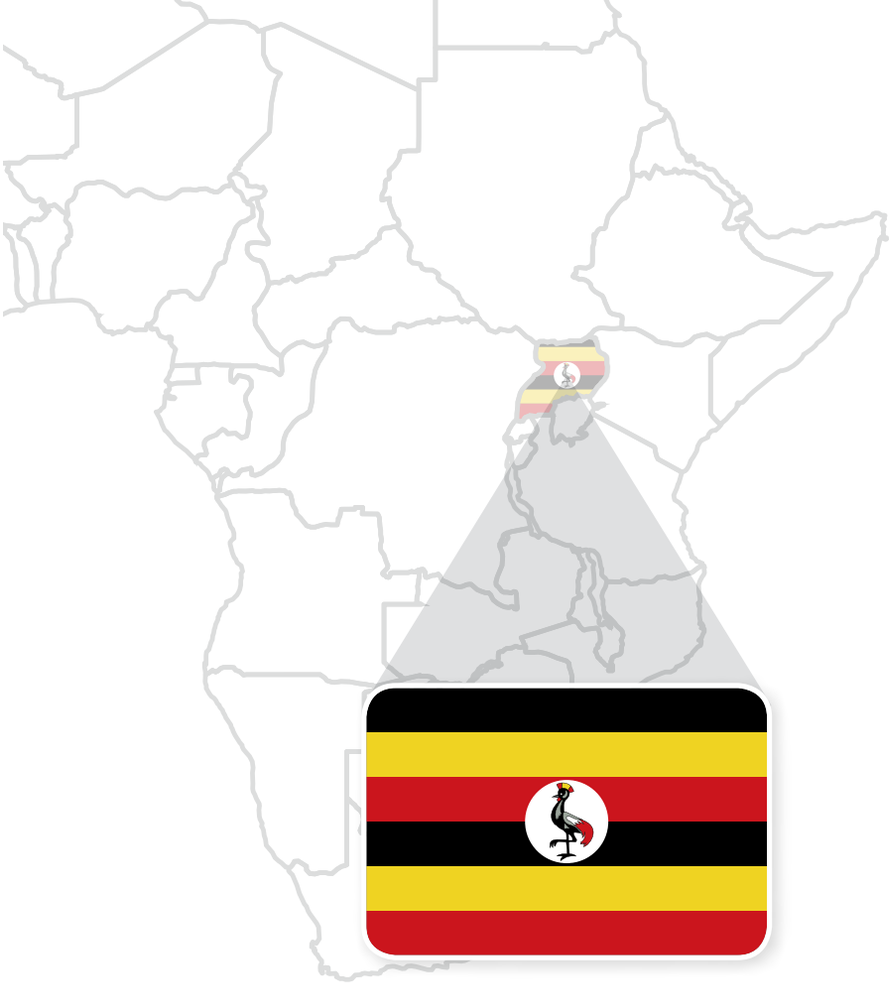
2020

# 우간다공화국 개황

Republic of Ugan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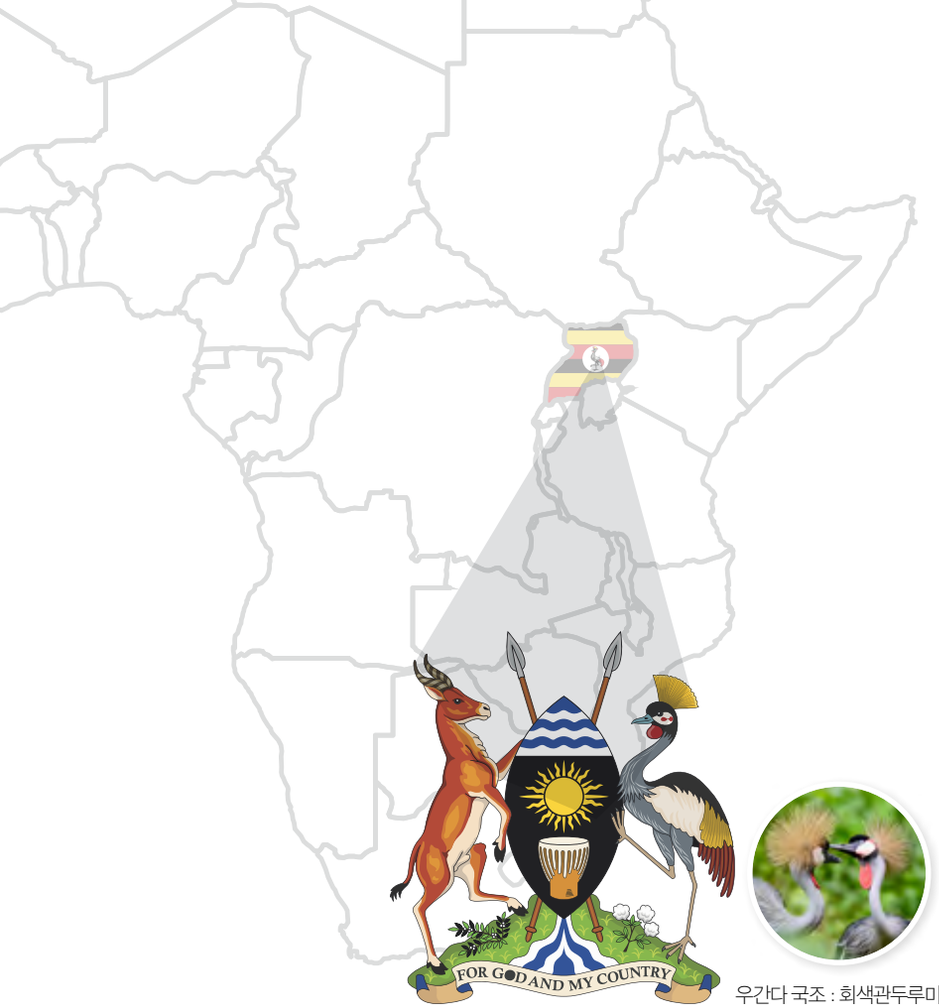

외 교 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 우간다 국기 |

위로부터 검정, 노랑, 빨강색의 가로 띠가 차례로 두 번 반복되고,
한 가운데에 흰색의 원이 있고 그 안에 국조(國鳥)인 회색관두루미
(Grey crowned crane, Balearica regulorum)가 그려져 있음

- 검정색은 아프리카인을 나타내고
- 노란색은 태양을
- 빨강색은 아프리카인들의 형제애를 각각 상징






우간다 국조 : 회색관두루미

## | 우간다 국장 |

좌우에는 각각 우간다 영양과 국조인 회색관두루미,
방패에는 빅토리아 호수를 상징하는 푸른색 가로 줄무늬,
아래에는 우간다의 자연과 문화를 상징하는 태양과 전통 북,
대지의 가운데에는 국토의 중앙부를 통과하여 북서쪽으로 흘러가는
나일 강을 상징하는 푸른색 세로 줄무늬, 나일 강의 좌우에는
우간다의 최대 수출 작물인 커피나무와 면화가 위치



# CONTENTS


## Ⅰ 개관

1. 일　　반 ····· 010
2. 자연환경 ····· 012
3. 경　　제 ····· 013

## Ⅱ 약사

1. 정치 약사 ····· 018
2. 외교 약사 ····· 025

## Ⅲ 정치·외교

1. 정치 제도 ····· 030
2. 최근 정세 ····· 033
3. 외교 관계 ····· 035

## Ⅳ 경제

1. 경제 현황 ····· 040
2. 최근 경제 동향 ····· 043
3. 산업별 동향 ····· 045

## Ⅴ 개발협력

1.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 050
2. 국가개발전략 동향 ····· 052

## Ⅵ 사회·문화

1. 인구 및 민족 ····· 056
2. 종교 ····· 057
3. 관광 ····· 058
4. 문화 ····· 062
5. 언론 ····· 066
6. 교육 ····· 067
7. 보건 ····· 068

##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정무 ····· 072
2. 경제통상 ····· 075
3. 개발협력 ····· 076
4. 재외동포현황 ····· 081

## Ⅷ 북한과의 관계

1. 북한과의 관계 ····· 084






# 개관

1. 일반 010
2. 자연환경 012
3. 경제 013

# I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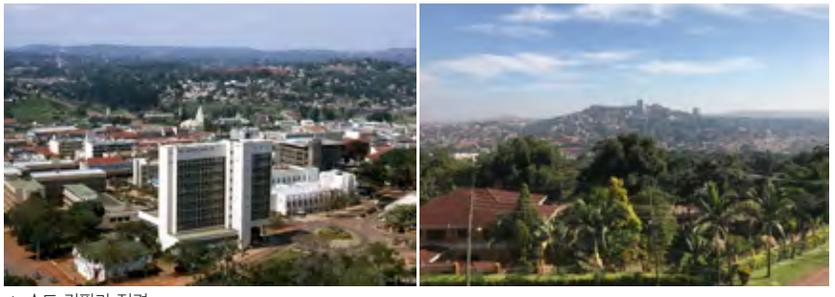
## 1 | 일 반

» **국 명** :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 **위 치** : 아프리카 중부 내륙, 5개국과 접경
- 동쪽 : 케냐
- 서쪽 : 콩고민주공화국
- 남쪽 : 르완다, 탄자니아
- 북쪽 : 남수단

» **면 적** : 241,551㎢(한반도 면적보다 살짝 큰 정도)

» **인 구** : 4,280만명(2017년 인구총조사 기준)
- 전 세계 기준 34위
- 수도 : 캄팔라(Kampala)



△ 수도 캄팔라 전경

» **시간대** : UTC/GMT +3 시간

» **언 어** : 영어(공용어), 루간다어, 스와힐리어(공용어), 기타

» **종 교** : 카톨릭(39.3%), 성공회(32.0%), 이슬람(13.7%), 오순절/복음주의(11.1%), 기타(3.9%) (2014년)

» **독립일** : 1962년 10월 9일(영국으로부터 독립)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5년 임기)

» **국가원수** : 요웨리 카구타 무세베니(Yoweri Kaguta Museveni) 대통령
- 1986년 이래 장기집권(1996년 대통령 직선제 실시 이후 5선 연임)

» **부통령** : 에드워드 세칸디(Edward Ssekandi, 2011.5.–)

» **총 리** : 루하카나 루간디(Ruhakana Rugunda, 2014.9.–)

» **외교장관** : 샘 쿠테사(Sam Kutesa, 2015.1.–)

## 2 | 자연환경

### 가. 지형

» 우간다는 동아프리카 평원지대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동경 32°, 북위 1° 사이에 위치(평균고도: 1,000m-1,200m)

» 동쪽으로는 케냐, 서쪽으로는 콩고민주공화국, 남서쪽으로는 르완다, 북쪽으로는 남수단, 남쪽으로는 탄자니아와 국경 인접

» 우간다에는 호수와 강이 많으며, 특히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 지역에 위치한 빅토리아 호수는 면적 69,484㎢, 최대수심 84m, 호안선 길이 4,828㎞에 이르는 아프리카 최대 호수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

- 우간다가 호수의 45%(31,000㎢), 케냐가 6%(4,100㎢), 탄자니아가 49%(33,700㎢)를 차지

» 국토이용(2011년 기준)

- 농지 : 71.2%(경작가능한 땅 34.3%, 연속수확 11.3%, 목초지 25.6%)
- 임야 : 14.5%, 기타 14.3%






△ 빅토리아 호수

» 관개지 면적 : 140㎢(2012)

» 최근 환경 이슈 : 알버트 호수 지역의 원유 개발에 따른 환경 오염, 농지 확장을 위한 습지 개간, 산림 벌채, 가축 방목에 따른 토지오염, 밀렵 등

### 나. 기후

» 고온 건조한 열대성 기후로 평균 해발 1,000m-1,200m의 고원지대에 위치하여 낮은 더우나 아침저녁은 선선

-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건기는 12-2월, 6-8월
- 가장 더운 달은 1월로 평균 기온은 18-28도, 가장 추운 달은 7월로 17-25도
- 가장 건조한 달은 7월로 평균 강우량 46mm, 가장 습한 달은 4월로 평균 강우량 175mm

## 3 | 경제

» GDP : 274억불('18년, World Bank)

» 1인당 GDP : 643불('18년, World Bank)

» 경제성장률(GDP) : 6.2%('17-'18년, World Bank)

» 물가상승률(GDP Deflator) : 3.2%('18년, World Bank)

» 교역규모 : 111억불('18, IMF)

» 수출 : 43억불(주요 수출품 : 커피, 시멘트, 면화)

- 주요 수출국 : 케냐(20.9%), UAE(11.2%), 르완다(9.5%), DR콩고(8.9%)

» 수입 : 68억불(주요 수입품 : 기계장비, 자동차)

- 주요 수입국 : 중국(17.9%), 인도(17.2%), UAE(9.2%), 케냐(9.2%)

» 화폐단위 : Uganda Shilling(US $1=3,674 UGX, '19.9월 기준)

» 산업별 인구 종사 비율

- 농업 : 71.9%, 산업 : 4.4%, 서비스업: 20.2%

» 주요 지하자원 : 석유, 동, 주석, 석탄, 텅스텐, 금, 코발트








# 약사

1. 정치약사 018
2. 외교약사 025

II

# 약사



## 1 | 정치 약사

### 가. 고대 – 1894년

» 서기 1세기에서 10세기 사이 현재의 빅토리아 호수 북부에 인구가 거주하고 족장중심에서 국가형태의 정치체제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

» 15세기 경, 나일어를 사용하는 목축인들이 부족국가 형태의 츠웨지(Chwezi) 라는 국가를 세우고, 농업을 중심으로 했던 반투족을 지배

» 15-16세기에 엄격한 신분제도를 가진 히마(Hima) 및 왕족중심의 부뇨로 (Bunyoro), 모계씨족 중심의 부간다(Buganda) 왕국이 생겨났으며 이후 빅토리아 호 북부는 부뇨로와 부간다 중심으로 개편



» 이집트는 영국인 탐험가 사뮤엘 베이커(Samuel Baker)와 함께 군대를 보내 부뇨로를 정복하려 하였지만 저항이 심해 실패. 배타적인 부뇨로와 달리 부간다는 교역에 있어 외국인에 대해 비배타적

» 부간다에서는 잔지바르(Zanzibar)의 무슬림 상인들이 가세해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인 사람들 사이에 4년간(1888-1892)의 내전이 일어났으며 기독교 연합이 승리

» 이후 1892년 1월 부간다를 영국령으로 만들 것을 건의한 개신교 선교회와 부간다의 독립을 주장한 카톨릭 선교회간이 충돌이 일어났으며 1894년 개신교로 개종한 부간다 족장들이 지지하는 가운데 영국은 우간다에 보호령을 선포

### 나. 영국 보호령 시기(1894년~1920년)

» 나일강 상류에 대한 관리권을 주장한 영국은 이집트 총독에게 고용되었던 누비안 용병의 도움으로 북쪽으로 국경을 확장

» 1897년 누비안 용병부대가 대우에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켜 영국은 식민지 인도에서 영국-인도군을 파견해 2년간의 전투 끝에 진압하는 과정에서 바간다 기독교 연합은 영국에 대한 확고한 지지 표명

» 이 지지에 대한 보상으로 영국은 부간다와 개별적인 조약을 체결, 보호령이라는 간접 지배하에 자치정부 및 자치권을 허용. 대부분의 영국연방이 영국의 식민지로 귀속된 것과는 달리 우간다는 식민통치가 아닌 자치정부 형태를 띠었으며, 조약을 통해 부뇨로를 정복한 영토의 반이 부간다에 귀속

» 영국은 부간다의 족장들을 식민 정부의 조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부간다 왕족은 사적인 영토를 확보

## 다. 영국 식민지 시기(1920년-1950년)

» 1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정부의 관료들은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지방행정관으로 봉직하면서 젊은 세대의 관료진출이 증가

»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목화농장에서 일을 하던 소작인들이 농지를 사들여 자작농으로 변모해갔으며 식민정부도 이와 같은 땅의 소유권 분산을 지원하고 1927년에 식민정부는 농지의 임대나 강제노동을 엄격히 금지

- 이에 따라 1900년 부간다 조약으로 성립되었던 족장체제의 과두제가 무너지고 농업생산은 독립적인 소규모 자작농으로 점차 이동
- 독일과 영국의 전쟁으로 황폐해진 탄자니아와 달리 우간다는 농업생산 증가로 번영을 이루었으며 해외의 가격변동에 민감한 백인들과 달리 우간다인들은 수출농작물의 가격이 오를 때까지 자급할 농사만 지으면 되었기에 1930년대의 대공황의 여파에 덜 민감

»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식민 정부가 농민의 환금작물의 구매와 가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인도인 도매상들에게 가격과 비축량의 결정을 맡긴 것과 영국·인도인들이 목화씨를 빼는 조면공정에 우간다인들이 진출하지 못하게 한 것에 큰 불만
(1920년대 세워진 인도인 농장의 노동력은 모두 우간다인들이 담당)

» 이러한 것에 불만을 가진 우간다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정부의 가격통제 포기, 목화 조면공정의 인도인 독점 개선, 지방정부 대표를 영국정부임명이 아닌 국민들이 뽑을 수 있도록 할 권리를 주장했지만 영국 총독은 이를 거절

»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정부는 우간다의 독립에 대비해, 조면공정의 장벽, 커피 가격 철폐를 단행했으며 이익집단으로 이루어진 입법의회를 각 지역에서 선거에 의해 뽑힌 지역대표들로 이루어지도록 재조직

## 라. 영국으로부터의 독립(1950년~1962년)

» 1952년, 영국 국무장관이 백인 정착자들이 지배하는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3개국의 동아프리카 연방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우간다인들의 반감이 증가해 카바카(Kabaka) 2세는 영국 총독의 동아프리카 연방계획을 거절하고 나머지 보호국으로부터 우간다의 독립적인 사법권을 주장

» 카톨릭이 주도하는 민주당(Democratic Party)에 반대하는 연합 세력인 우간다 민중의회(UPC: Uganda People's Congress)가 밀턴 오보테(Milton Obote)에 의해 창당

» 영국 정부는 우간다에 독립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1961년 총선을 실시

-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석을 확보

» 왕정파이자 바간다 분리주의자들이던 카바카 예카(Kabaka Yekka)와 UPC간 연정이 합의

» UPC와 카바카 예카의 연합으로 독립직전 마지막 선거에서 UPC 43석, 카바카 예카 24석, 민주당 24석으로 구성되어 1962년 10월 우간다의 독립과 함께 오보테가 총리로 선출되고 카바카가 대통령으로 당선

## 마. 오보테 정권 1기(1962년~1971년)

» UPC내 각 이익단체의 연정을 책임져야할 오보테는 부간다만의 특별 대우에 대해 다른 왕국들에게도 비슷한 대우 필요성 인식

» 1964년에 급여 인상과 승진을 요구하는 군의 폭동 이후, 오보테는 하급장교인 이디 아민(Idi Amin)을 후견인으로 지명

» 군의 폭동 이후 반대세력들이 연합정권 내부에서 점차 약해지고 오보테의 지지 기반이 확고해지는 시기에 부뇨로 왕국은 영국과 부간다 왕국의 조약으로 '잃어버린 지역'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오보테가 이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공표

» 카바카 예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뇨로는 선거를 통해 잃어버린 땅을 귀속시켜 UPC-카바카 예카 간 연정이 붕괴됨과 동시에 UPC는 제1당으로 부상

» 바간다로부터의 위협이 약해지자 반바간다 연합세력 역시 결속력을 잃게 되고 UPC내 갈등으로 확대

» 오보테의 비밀 은행잔고를 근거로 오보테에 반대하는 불신임 투표가 의회에서 통과했지만, 오보테는 이디 아민을 사주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국의 권한 및 자치정부 폐지, 총리에게 집중된 권력을 대통령에게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서 강제 통과. 이로써 왕권을 폐지한 공화국체제로 들어서게 되지만 사실상 군법으로 통치

» 오보테는 국민 헌장(Common Man's Charter)을 발표하고 탄자니아 대통령 줄리우스 니에레레(Julius Nyerere)의 아프리카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

» 군의 권력이 아민에게 집중되자 오보테는 아민을 견제하게 되고 1971년 싱가폴에서 열리는 영연방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오보테는 아민의 추종자들을 체포할 것을 명령. 이는 아민의 쿠데타 빌미를 제공

## 바. 이디 아민 정권(1971년~1979년)

» 이디 아민은 쿠데타를 일으켜 1971.1.25 정부를 장악하고 오보테는 탄자니아로 도피

» 아민은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자신은 관리인 역할만 하겠다는 의례적인 성명을 발표하지만 곧 대통령에 취임

» 우간다에 있는 8만 명의 인도인 재산을 몰수하고 국유화한 동시에 추방조치를 단행

» 리비아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원조를 끌어내기 위해 이슬람 지원

» 아민은 1978년 오보테의 피난처를 제공한 탄자니아를 인접 지역 영토 병합을 위해 공격하고 비밀경찰을 이용해 공포정치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약 30만명의 국민이 정부에 의해 살해

» 우간다와 전쟁을 선포한 탄자니아와 티토 오켈로(Tito Okello), 데이비드 오조크(David Ojok),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가 이끄는 국가구원전선(FRONASA)과 우간다민족해방군(UNLA, Uganda National Liberation Army)이 캄팔라에 입성하고 1979년 4월에 아민이 해외 도주하면서 아민의 독재 종결

## 사. 오보테 2기 및 군사정부(1979년~1986년)

» 탄자니아의 비호를 받은 유수프 룰레(Yusuf Lule)가 임시 지도자 자리에 올랐지만 우간다 해방전선(UNLF)에 실권이 넘어가 군위원회가 새로운 선거가 있기까지 과도정부 통치

» 부정선거로 오보테가 다시 당선되고 결과에 불복한 무세베니와 기타 반정부 단체들이 반기를 일으켜 다시 내전발발. 약 50만명의 국민이 내전으로 사망

» 무세베니가 1980년 부정선거에 저항해 국민해방군(National Liberation Army)을 이끌고 내전발발

» 1986년 1월 29일에 무세베니는 공식 대통령직 취임 선포

### 아. 제 3공화국
### – 무세베니의 국민저항운동(NRM) 정부(1986년~현재)

» 무세베니 정권과 NRM(National Resistance Movement)은 부패와 당파주의를 극복하려 4년간의 과도정부를 선언하고 폭력 분쟁을 근절시키기 위한 정당 활동 제한
- 정부는 부간다 왕을 포함해 전통 왕국을 복권시키나 정치적 권력 미부여
- 공산주의를 버리고 신자유주의를 택해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IMF의 경제회복 프로그램 이행

» 1996년 5월 최초의 선거가 시행되어 75.5%의 지지를 얻어 무세베니가 대통령 당선

» 2000년 국민투표로 다당제 채택

» 2001년 대선에서 무세베니 재선

» 2002년 종교 기반 반군단체인 신의 저항군(Lord's Resistance Army, LRA)이 북부에서 민간인을 공격해 정부는 40만명 대피

» 2005년 7월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와 다당제가 명시된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92.5%의 찬성으로 통과

» 2006년 25년만에 다당제 선거가 실시되어 NRM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한 결과 무세베니가 대통령에 3선으로 당선
- 야당 대표인 키자 베시지(Kizza Besigye)가 반역죄 혐의로 기소 및 구금되었으나 대선에 출마해 37%를 득표



» 2006년 정부와 LRA는 분쟁 종식에 공식 합의

» 2010년 수도 캄팔라에서 알-샤바브의 폭탄 테러로 74명이 사망

» 2011년 2월 대통령과 의회선거에서 375석 중 280석을 차지한 NRM이 집권 기반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정당으로 발전함. 동시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제 유지하는 한편 지방정부에 권력을 일부 양도

» 2016년 무세베니 대통령이 5선으로 당선
- 야당 대선 후보인 키자 베시지(Kizza Besigye)는 부정 선거의혹을 제기

» 2017년 남수단 내전으로 인해 남수단으로부터 우간다로 유입된 난민 인구가 100만명을 돌파

» 2017년 국회는 대통령 연령 제한 철폐를 의결하였고, 무세베니는 2021년 대선에 출마

## 2 | 외교 약사

» **독립 이후 1960년대**
- 범 아프리카주의(Pan-Africanism) 선도 : 아프리카 해방위원회(Liberation Committee) 참여, 남아공의 인종분리주의 및 인종차별, 로디지아, 모잠비크, 앙골라, 적도기니에서 식민지배 지속을 선도
- 비동맹 운동 참여 : 비동맹 운동 지지 외교를 전개했으나 서방 국가와 긴밀한 경제협력관계 유지. 동시에 군 개혁을 위해 중국, 러시아, 체코 공화국으로부터 군사훈련 지원. 미국 및 러시아 대사관을 같은 날에 개설하는 등 동서 진영

간 외교적 균형 유지에 중점

- 사회주의 도입 : 우간다는 탄자니아 니에레레(Nyerere) 대통령의 사회주의 정책에 영향을 받아 친사회주의 국가 그룹인 카사블랑카(Casablanca) 그룹에 가입. 1967년 헌법에는 민영 기업의 국유화를 규정하고 1967년 나키부보(Nakivubo) 선언을 발표하며 외국인 소유 자산의 정부의 강제 수용을 발표
- 동아프리카 협력 증진 : 언어, 문화, 민족 영국 식민지배 등 공동 요소들을 기반으로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간 동아프리카 공동서비스기구(East African Common Service Organization)를 수립. 그러나 상이한 경제발전 및 산업화 속도, 국가간 외교정책 차이 등으로 인해 1976년 기구 운영 종료

### » 이디 아민 정부 시기(1971년-1979년)

- 1인 독재 심화와 아민의 변덕스러움으로 인해 극히 불안정하고 예측불가능한 외교정책 시행
- 집권 초기 아민은 영국 및 이스라엘을 방문해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요청하였으나, 소극적인 반응에 실망해 이들 국가들에 적대적인 태도로 돌변
- 1972년 아민은 아시아인을 쫓아낼 것을 신이 지시한 꿈을 꾸고 우간다에 거주중인 아시아계인들을 국적과 무관하게 전격 추방. 이로 인해 서방 국가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서방 국가들이 원조를 중단
- 서방 국가와 관계 악화로 인해 아민 정부는 아랍 국가 및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원조 요청
- 탄자니아 정부는 아민을 적법한 우간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보테가 탄자니아에 망명해 극진한 대우를 받고, 우간다 군 중 다수가 탄자니아로 도피해 우간다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우간다-탄자니아 관계 악화
- 아민은 식민지배 시대에 국경이 잘못 획정되었다며 케냐 영토 일부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해 케냐와의 관계 악화
- 1978년 부통령을 지지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군대가 탄자니아로 도피하자 탄자니아를 침공해 영토 일부를 병합한다고 선언했으나, 탄자니아군의 반격으로 우간다 수도가 점령

### » 국민저항운동 정부(1986-현재)

- 무세베니 집권 초기 서방 국가들은 무세베니의 사회주의적 성향 및 다당제 불허 등을 우려해 지원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우간다는 쿠바, 유고슬라비아 및 북한과 물물교환 협정을 체결
- 우간다는 물물교환 교역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제외교로 선회, 월드뱅크 및 IMF의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수용하며 재정 지원을 받음. 이에 따라 국영기업 민영화, 화폐 개혁 등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고, 아프리카 국가와의 경제 통합이 심화
- 역내 분쟁해결 및 협력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에 중점
  - 케냐, 탄자니아, 부룬디, 르완다와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를 결성하여 정치·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
  - 2010년 공동시장 설립, 2014년 우간다-르완다-케냐 3개국의 공동 비자 도입, 2014년 10년 단일통화 도입을 목표로 하는 계획 발표 등 역내 협력 가속화
  -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와 정부간개발기구(IGAD)에서도 활발한 활동
  - 2007년 소말리아에 대한 AU차원의 평화유지군 파병에 동참하고, 동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 규모의 병력을 파병하는 등 동아프리카 주도 국가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노력
  - 2011년 남수단의 독립으로, 우간다-남수단 간 경제 협력 및 무역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3년 말 발생한 내전을 중재하기 위한 IGAD 및 EAC에서 노력을 지속
  - 2013년 말 발생한 남수단 내전의 해결을 위해 에티오피아, 케냐 등과 함께 IGAD 협상의 중재자로서 적극 참여






# 정치 및 외교

1. 정치 제도 030
2. 최근 정세 033
3. 외교 관계 035

# III

# 정치 및 외교



## 1 | 정치 제도

### 가. 정치 개관

» 정치체제 : 대통령 중심제 입헌 민주공화국

- 공화국 형태로 입법(Legislative), 사법(Judicial), 행정(Executive)으로 구성
- 실질적으로 여당인 국가저항운동(NRA – National Resistance Movement)이 군사와 정치를 모두 장악

» 중앙정부와 지역정부로 구분

- 州단위로 중부(Central), 동부(Eastern), 서부(Western), 북부(Northern) 4개 지역(Region)으로 구성
- 지역정부는 지역(Region), 디스트릭트(District), 카운티(County), 서브카운티(Sub County), 패리쉬(Parish), 빌리지(Village)로 구성



- 각각의 행정구는 행정,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장(Chairperson)은 지역사람들이 직접 선출
- 주요 대도시로 캄팔라(Kampala), 굴루(Gulu), 리라(lira), 진자(Jinja), 엔테베(Entebbe)가 있으며, 수도인 캄팔라는 중앙정부에 직접 귀속되는 행정단위

### 나. 정치 체제

» **(헌법)** 헌법은 ▲ 민주주의 원칙 실현 ▲ 국가통합과 안정 ▲ 자주와 독립 및 지역통합 ▲ 인권과 자유보호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 노인과 여성, 장애인 보호 ▲ 개발에 있어서 국민과 국가의 역할 정의 ▲ 천연자원의 보호도 규정

- 헌법에 따라 현 정부를 국민저항운동(NRM, National Resistance Movement) 정부로 명시하고 있으며 당과 군의 역할 규정
- 2017년 마지막 개헌시 대통령의 연령 제한 규정 철폐

» **(행정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우간다 군의 사령관으로 헌법 규정

- 대통령은 직선제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연임 제한이 없음.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지 못할 시 차선 후보자와 30일 내에 결선을 치러 다수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
-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의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 거부권 가능
- 내각구성은 법률에 따르며 장관의 수는 국회의 동의가 없는 한 21명 이내에서 대통령이 효과적인 국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지명 가능
- 장관 및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은 국회의원 겸직 허용

» **(입법부/의회)** 제10대 우간다 국회(2016-2021.2)는 총 417명의 5년 임기 국회의원으로 구성

- 이 중 직선은 402명(여성할당제 의원 112명 포함)이며, 간선인 특정이익단체소속(장애인 5명, 청년의원 5명, 노동자 5명) 및 군위원회 의석(10명)은 25명
- 무세베니 정권은 1986년 취임 이후 과도정부를 선언하고, 정당 활동을 제한하

였으나 2005.7월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와 다당제가 명시된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다당제를 실시

- 제10대 국회에서 여당(NRM)은 무세베니 대통령을 당수로 하여 총 294개 의석수를 확보하였으며, 제1야당은 민주변화포럼(FDC, Forum for Democratic Change)으로 의석수는 36석에 그치나, 캄팔라에서 높은 지지도를 확보
- 정당으로는 우간다 초대 대통령 오보테(Obote)가 창립한 우간다 국민의회(UPC, Uganda People's Congress/6석), 우간다 독립과 국가통합을 목적으로 1952년 독립 이전 세워진 민주당(Democratic Party/15석) 등으로 구성

» **(사법부)** 대법원(Supreme Court), 항소법원/헌법재판소(Court of Appeal/Constitutional Court), 고등법원(High Court), 치안판사재판소(Magistrate Court), 일반재판소(Tribunal)로 구성

- 대법원은 우간다 사법부 기관 중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 하부 법원에서 상소된 모든 재판을 다루지만 대통령 선거에 관한 청원은 하부법원으로부터 상소되지 않고 직접 대법원에서 판결
- 헌법재판소는 1995년 헌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원으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중간 역할. 대법원으로의 상소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재판 외에는 제기된 소송에 재판 미진행
- 고등법원은 치안판사 재판소로부터의 상소를 담당하고 치안판사 재판소를 관리
- 치안판사 재판소는 범죄와 관련된 재판을 주로 담당. 우간다 전역은 26개의 치안판사재판소구역으로 나누어지며, 재판소장(Chief Magistrate)은 각각의 재판소가 관할하는 사법권 구역을 감독
- 일반법원은 군사법원, 공업 재판소, 세금상소 재판소, 무수익자산회수신탁 재판소, 토지재판소, 인권재판소를 포함한 개별적 재판소의 집합

» **(지방정부)** 권력의 분산화를 위해, 헌법 176조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책임 및 운영, 원리, 구조를 정의

- 권력의 지방 분산화를 위해,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 선거법(Electoral Commission Act)에 따라 지방정부 선거가 실시
- 지역정부는 지역 자치평의회(Local Council)와 행정단위체 평의회(Administrative Unit Council)로 나누어지며 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법권, 자치입법권, 행정권을 자체적으로 행사
- 지방정부 평의회(Local Government Council)에서 대표, 선거구 대표로 직접 선출된 평의원, 평의회의 1/3을 구성하는 평의원이 비밀투표를 통해 일반성인 참정권에 의해 선출



## 2 | 최근 정세

### 가. 2021년 선거 동향

»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K. Museveni) 대통령은 1986년 이래 우간다를 통치중이며 2016.2월 대선 및 총선에서 승리, 5선 연임 및 여당(NRM)의 재집권에 성공

- 무세베니 대통령은 인구의 80% 이상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반면, 야권은 지도력을 갖춘 구심점 없이 분열되어 있으며, 자원과 조직력,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 부재한 상황으로 평가

» 1986년부터 집권 중인 무세베니(Museveni) 대통령의 임기 연장(6선 연임 시도)을 위한 헌법 개정안(나이 제한 상·하한 철폐)이 2017.12월 우간다 의회에서 통과되어, 무세베니(Museveni)대통령의 2021년 차기 대선 출마 및 사실상 종신제 구축을 위한 포석 마련

» 재선 연령제한 철폐 이후 여론이 악화되고 젊은 야당 지도자 보비 와인(Bobi Wine)의 인기가 상승하자, 야당 국회의원 및 집회 참가자에 대한 불법 체포 및 폭력을 행사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

» 2020년 중 선거를 앞두고 반정부 집회 격화, 시민 탄압 등 국내정치 불안정이 증가

## 나. 인권 치안 동향

» 소셜 미디어 이용 및 모바일화폐 거래 과세안(2018.5월)을 시행하고 2019년중 예술인 및 예술 공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 권리를 제한

- 2011-2017년간 살인(125%), 강간(157%), 성범죄(95%), 강도(64%) 등 강력범죄 급증

»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한 2018 인간개발지수(HDI)에서 우간다는 총 189개 대상국가 중 탄자니아와 공동 159위를 차지하여 인간개발지수가 낮은 국가로 분류

- 세계 다차원적 빈곤지수[1](MPI) 보고서(2019.7)는 우간다의 국가 다차원적 빈곤의 빈도는 55.1%로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평균인 57.5%와 유사한 것으로 발표
- 우간다 식수·위생 보급률은 도시 지역이 지방보다 약 2배 높으며, 최상위 소득 20%에 대한 식수·위생 보급률은 최하위 소득 20%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
- 우간다 국민의 80% 이상은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에 종사하며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
- 우간다 여성의 50% 이상이 사회 보장 제도의 부족, 저임금, 높은 실직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1) 다차원적 빈곤지수(MPI)는 한 개인이 동시다발적으로 겪고 있는 박탈을 빈곤지수화 한 것으로 보건, 교육, 생활수준에 따른 10가지 요소로 평가



# 3 | 외교관계

## 가. 동아프리카 지역

» 동아프리카 국가로의 수출 증대 및 내륙국의 지리적 한계 보완을 위해 동아프리카공동체(EAC) 통합에 동참하고, 분쟁 지역(남수단, 브룬디, 소말리아)에서 역내 안정자 역할을 지속 수행

- 주요 수출 대상국인 케냐 및 르완다와는 전반적으로 우호적 외교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나, 르완다와는 상호 내정간섭 행위 제기로 낮은 강도의 갈등이 상존
- 탄자니아와는 상호 교역 증대, 초국경 에너지 인프라 사업(송유관, 수력발전, 천연 가스 파이프) 지속 추진

» **(테러 위험)** 우간다군은 소말리아 및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파병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말리아 개입 지속에 불만을 품은 Al-Shabaab 등에 의한 테러 위협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난민 대응)** DR 콩고 에볼라 확산에 따른 국경 검문검색 강화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해 포용, 개방 정책을 견지 예상[2]

- 총리실 및 UNHCR의 우간다 난민사업 비위가 공개됨(2018.12월)에 따라 공여국들의 난민사업 지원이 후퇴해 난민 정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가능

## 나. 서방국가

» 우간다는 과거 비동맹노선 및 반식민주의 표방에 사회주의 성향 국가들과 긴밀

2) 우간다 내 난민은 1.17백만명(2018.11월 기준)으로, 남수단(79만명), DR콩고(30만명), 브룬디(3.4만명)

한 관계를 유지한 반면 서방국들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으나, 경제성장 우선 정책에 따라 서방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

- 서구 원조공여국은 우간다의 반동성애 법안, NGO 법안(반정부 성향 NGO 활동 제약), 부정부패, 민주주의 개혁 노력 부족에 우려 표명

» 서방국가는 민주주의, 인권 증진, 부패 근절 노력이 지체되는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 수준의 우호적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다. 아시아

» 아시아 기업 진출, 상품 수입 확대에 따라 아시아 국가와 양자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우간다의 대중국 의존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중국)** 중국의 對아프리카 투자 및 원조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간다에 대한 중국의 정치·군사·경제 영역에서의 영향력 또한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반면, 중국 기업들이 대형 국책사업 관련 부정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우간다 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도 확산 중
  - 중국은 중-아프리카협력포럼(FOCAC) 틀 안에서 고속도로, 표준궤 철도, 공항 신개축 및 수력발전소 건설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적극 지원(80억 불 이상)
  - 현재 중국은 對우간다 FDI의 50% 이상을 투자하며 대형 인프라 사업에 참여 중(엔테베-캄팔라 고속도로, 표준궤 철도, 엔테베 공항 신개축 및 이심바 및 카루마댐 건설 등)

» **(인도)** 무세베니 대통령은 이디 아민 정권 당시 인도인 차별 정책을 폐지하고, 일부 재산을 환수하면서 인도와의 관계 회복에 나섰으며, 1990년대 이후 고위급 인사 교류를 지속하면서, 우간다 개발과 인적자원 역량 개발과 관련된 인도측 지원도 계속

- 우간다 내 약 2만 7천명의 인도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제조업, 농가공, 금융, 부동산, 정보통신 분야 사업체를 운영하며, 주요 상권을 장악







# 경제

1. 경제 현황 040
2. 최근 경제 동향 043
3. 산업별 동향 045

# IV 경제

## 1 | 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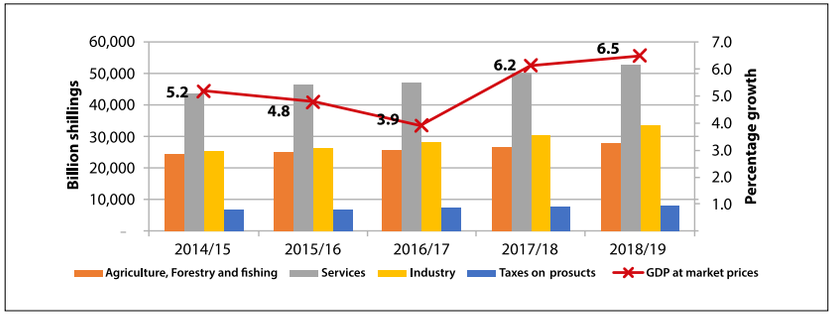
**» 최근 주요 경제 지표**

- **(GDP)** 최근 수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2017년 3.9%라는 낮은 성장률[1]을 기록하였으나, 예년 기후 회복, 민간 신용 개선으로 2019년 5.9%로 개선
- **(인구)** 인구증가율은 3.3%대로 세계 5위이며, 인구당 경제성장률은 약 3.1%로 주변국(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대비 부진
- **(교역)** 2019년 수출은 40억불(전년 대비 16.9% 증가), 수입은 68억불(전년 대비 15.9% 증가), 무역수지 23억불 적자

1 ] GDP 성장률 : (2015) 5.2% → (2016) 4.8% → (2017) 3.9% → (2018) 6.1%



〈도표 1 : 우간다 부문별 GDP 성장 추세(2014-2019)〉




출처 : 2019 우간다 통계연보 (Uganda Bureau of Statistics, Statistical Abstract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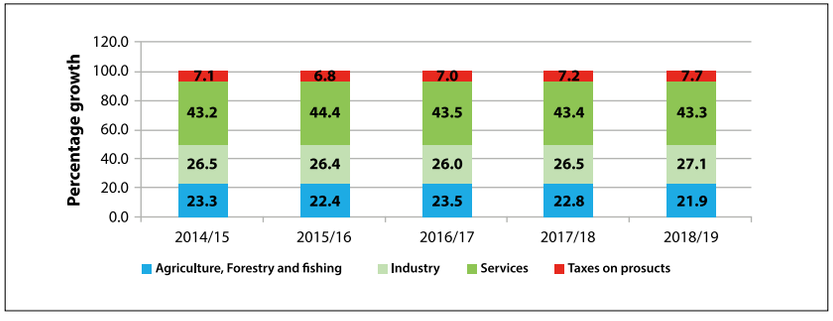
**»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1차 생산물 위주의 수출과 소비재 수입에 의존**

- 최근 농업의 GDP 비중이 다소 하락하고, 산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농업은 우간다 대외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고용인구의 72%가 종사하는 등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지
- 서비스업은 GDP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신/금융/호텔 등 서비스업이 대폭 성장
- 인접국인 케냐, 남수단, 르완다, DR콩고 등으로 야채/식료품, 동물, 연료, 광물 등을 수출하며, 커피, 차(w茶), 면화, 담배 등이 주요 수출품
- 주요 수입국은 케냐, 인도, 중국, 남아공 등으로, 우간다는 주요 소비재의 자체 생산 능력이 없어 연료, 기계 및 화학제품, 차량, 금속 등의 소비재를 주로 수입

**» 석유 매장량이 풍부해 석유개발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 견인 기대**

- 2006년, 알버트(Albert) 호수 근처 리프트 밸리(Rift Valley) 지역에서 2006년 매장량 7~10억 배럴, 일일 생산량 3만 배럴에 달하는 24개 이상의 유전이 발견
- 석유 생산은 2023년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생산이 개시될 경우 우간다는 앙골라, 나이지리아, 수단에 이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제4위의 산유

〈도표 2 : 부문별 GDP 기여도 추이(2014-2019)〉




출처 : 2019 우간다 통계연보 (Uganda Bureau of Statistics, Statistical Abstracts 2019)

국이 될 것을 예상되고 있으며, 석유 생산과 수출로 세수가 증대하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제약으로 경제 인프라가 취약

- 우간다는 인도양에서 800km 가량 떨어진 내륙국으로서 케냐의 몸바사(Mombasa)와 탄자니아의 다레살람(Dar es Salaam) 등 수출항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
- 내륙국으로서 한계를 극복하고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가 추진하는 '동아프리카 표준철도궤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북서부 지역의 석유개발과 더불어, 인도양으로 연결하는 송유관건설 등을 계획
- 도로/철도/전력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DA)의 대출과 융자지원 수혜

» 국가 경쟁력과 저임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진 기업 환경 보유

- 우간다는 노동시장의 효율성,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 금융시장 발전, 시장규모, 혁신 면에서 여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 다만 국내 부패, 자본 접근성, 인프라 미비 등은 제약 요소
- 기업 환경 측면에서는 최근 기업 설립, 전력사용, 신용 및 신뢰도, 채무해결 면에서 상당한 진전

» **교역 구조**

- 우간다의 2019년 총 수출은 약 40억 달러이며, 총 수입은 68억 달러로 약 2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
- 우간다의 주요 수출품은 농업생산물이 주를 이루며, 수입 품목은 석유와 공산품
- 최근 세계적 커피가격 상승과 인근국인 수단, DR콩고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수출이 현저한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수입이 수출보다 현저히 높은 실정
- 커피는 지난 5년간 우간다의 제 1의 수출품으로 대외 수출의 약 18%를 차지하며, 그 외에 금, 담배, 차, 면화 등으로 구성
- 주요 수출대상국은 인근 역내 시장인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에 속한 국가들로 케냐, DR콩고, 르완다, 수단
- 이외에 유럽연합(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국가들로의 커피, 화훼, 생선 등의 수출도 존재
- 우간다의 주요 수입품인 석유는 전체 수입의 22% 가량을 차지하며, 이 외에 차량, 의료 및 의약품, 철강, 시리얼 등을 수입
- 우간다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과 인도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며, 이외에 인근 아프리카 국가, 유럽 국가, 중동 국가들이 위주

## 2 | 최근 경제 동향

» 경제성장 단기 전망은 긍정적이나 정세, 공공부채, 기후 등이 위험으로 작용

- '18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개선(3.9%→6.1%)되었으나 인구당 성장률은 약 3.1%로 주변국(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대비 부진
- 농업 3.8%, 서비스 7.7% 등 부문에서 성장률 증가했으나 제조업 성장은 부진

- 하방리스크로 대내외 정세 불안, 기후 변동, 공공부채 누적, 유가변동 등 지목
- 경제성장에 주요 기여할 부문은 정보통신, 무역, 농업, 건설, 교육, 부동산 등

» **(재정정책)** 재정수입의 GDP 비중은 15% 수준으로 정부 목표인 16%에 근접하고 있어 긍정적이나,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자본지출의 GDP 비중은 3%에 불과 (르완다, 모잠비크는 동 비중이 10% 이상)

- 재정 정책 관련, 우간다 정부는'정부수입 동원 전략 2019-2023', '공공투자 지침(2017년 제정)' '민관협력(PPP) 법(2015년 제정)', '토지 수용법(2018년 제정)'등 민간 부문에서 재원 동원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 **(공공부채)** 2018년말 기준 GDP 대비 공공부채는 41%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말 기준 44%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

- 대외부채 중 70%는 다자기구를 통한 양허성 차관으로, 현재가치(PV) 기준시 GDP의 31% 수준으로 추정
- 세계은행이 IMF와 공동으로 우간다의 부채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을 분석한 결과, 부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단기 경기변동으로 인한 부채 급증 가능성이 높아 취약성이 높으며 현 부채 중 40%를 기존 부채 상환에 이용하는 등 신규 부채 위험도 존재
- 또한 석유 및 가스 생산 예상 시점이 2023년 이후로 지속 연기되고 있어 부채 상환 전망에도 부정적

» 전반적으로 단기 경제성장 전망은 낙관적으로, ▲ 2019.6월-2020.6월간 실질 GDP 성장률 6.5%(농업 2.8% /산업 6.1%/서비스 7.9%) ▲ 인플레이션 4.9% ▲ FDI 유입 증가율 4.3% ▲ 공공부채 비중 46.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전망은 차기 대선(2021.2월)이 다가옴에 따른 정치적 긴장이 심화되어 2020.6월-2021.6월간 성장률, 외국인투자 유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2020.6-2021.6월간 거시경제 지표 예상 : ▲ 실질 GDP 성장률 5.8%(농업 2.7% / 산업 6.5% /서비스 6.9%) ▲ 인플레 5.1% ▲ FDI 유입 3.7% ▲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 49.4%



» 대외 경제 관련, 경상수지 적자 확대, 자본 유입 감소, 수출기반 축소 심화

- 경상수지적자가 확대(GDP 대비 7%)되는 반면 해외송금(remittance) 및 관광 수입은 감소, 수출 시장은 케냐, EU, DR콩고, UAE 등에 편중
-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 증가, 수출 다변화, 관광산업 확충 필요

» **(경제 도전요인)** 높은 인구증가율로 인한 소득 성장 지체, 빈곤 인구 확대, 신규 고용 창출 부담 등이 장기적 성장의 도전요인으로 지목

- (소득 수준) 견실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구 증가율로 인해 우간다의 인구당 국민총소득(GNI)은 약 600불 수준에 정체되어 있으며 이는 동아프리카 주변국(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르완다) 대비 낮은 수준
- (빈곤) 2012-2016년간 빈곤 인구 비율은 21.4%로 증가한 바, 동 기간 140만명이 추가로 빈곤층으로 전락
- (고용 수요) 연간 신규 노동인구가 2014-2030년간 60만명, 2030-2040년간 100만명 이상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흡수할 수 있는 국내 경제 수요 부족.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부문은 관광, 제조업, 농업, 서비스, 운송 등이나, 현 교육 및 노동정책으로 볼 때 이러한 부문에 필요한 기술습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3 | 산업별 동향

### 가. 농업 및 어업

» **(농업)** 농업은 우간다의 주요 산업으로 GDP의 약 25%를 차지하며, 생산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 중. 주요 생산품은 옥수수, 바나나, 카사바, 콩 등 식량작물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출품목인 커피, 면화, 차, 담배 등 현금 작물로 구성

- 농업이 국가 수출 소득의 46%를 차지하며, 총수출액에서 커피 19%, 담배 5.1%, 시멘트 3.7%, 차 3.5%, 옥수수 3.4%를 차지

» 우간다는 풍부한 토지 자원, 풍부한 강수량, 연중 2모작 이상이 가능한 양호한 기후조건을 배경으로 헥타르(ha)당 최대 2,800 달러가량의 산출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농업 경쟁력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나, 관개시설 부족, 농업 기계화 및 저장 시설 보유 미흡, 현지 종자만의 이용 등 전통적이고 후진적인 생산 방식으로 생산성 저조

- 우간다는 현재 인구의 7배 또는 동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2배를 부양할 만큼 식량 생산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추정

» **(수산업)** 우간다는 내륙국이지만, 빅토리아 호수를 포함한 5개 주요 호수 및 160개 작은 호수에서 어업이 성행하여, 어류는 커피와 함께 우간다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

- 무분별한 어획으로 지속적인 어획량 감소와 냉장유통시설 부재, 열악한 어획 장비 등으로 수산업 발전에 한계점으로 지적

## 나. 에너지 및 광업

» **(석유)** 2006년 서부 Albert호 인근 지역에서 석유를 발견하였으며, 현재 확인매장량은 65억 배럴이며, 채굴가능 매장량은 14-17억 배럴로 추산

- 영국 Tullow, 프랑스 Total 및 중국 CNOOC사가 석유탐사허가권을 획득하여 유전을 탐사 중이며, 2017년 나이지리아 Oranto사 및 호주 Armour사가 추가로 석유탐사허가권을 획득
- 정부는 정유, 송유, 저장 및 분배 등 석유 화학 관련 시설 투자를 통해 광물 자원의 부가가치 확대를 통해 국가 세입의 증대 계획
- 서부 호이마 지역 29㎢ 부지에 일산 6만 배럴 규모의 정유소 건설(40억불 규모), 송유관 및 석유화학 제품 저장창고, 제반시설 설립을 통해 석유화학단지 조성도 구상
- 2016년 첫 석유 생산을 예측하였으나, ▲ 정부-석유사간 개발방식에 대한 이견에 잇따른 수주 포기, ▲ 관료주의, ▲ 석유 관련 법안 제정 지연 등 원인으로 석유 생산이 지연

» **(광물)** 우간다의 지하자원은 민주콩고공화국의 지질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상당한 광물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광물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정보는 미확인

- 2014년 기준 시멘트 원료 석회석(총 5,051만 달러), 포츨라나(601만 달러), 철광석(439만 달러)을 생산하였고 24만 달러의 금을 수출함. 공식 금 생산량 통계에는 소규모로 파악되며, 비공식 생산 및 수출이 이뤄지고 있음. 단, 2012년에는 통계상 1,260만 달러의 금을 수출하였으며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세 불안으로 유입된 금 수출이 집계된 것으로 파악
- 확인된 천연가스는 우간다 서부의 원유개발지역인 알버타인에 수반가스 182bcf와 비수반가스 418bcf

## 다. 서비스업

» 우간다 내 서비스업 중 통신과 금융 분야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동아프리카 전반에 걸친 휴대폰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금융시스템의 개선에 기인

- 우간다 휴대폰 가입자는 2013/14년 1,924만명, 2014/15년 2,191만명, 2015/16년에는 2,203만명으로 지속 증가세






# 개발협력

1.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050

2. 국가개발전략 동향 052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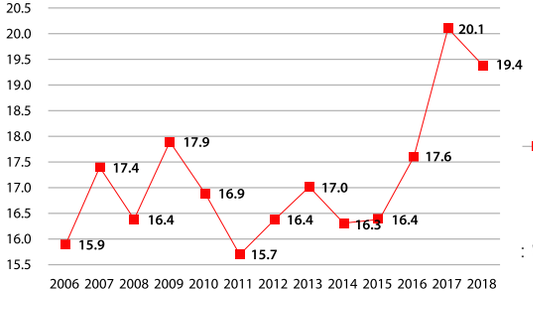
# 개발협력

## 1 |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 우간다는 2018년 기준 19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 수혜

- 2018년 1인당국민소득(GNI) 대비 7.3%를 차지
- 아프리카 54개국 중 8위의 수원국[1)]

〈도표 1 : 對우간다 ODA 공여액 추이〉 (단위: 억 달러)




출처 : World Bank Database (검색일 2020.0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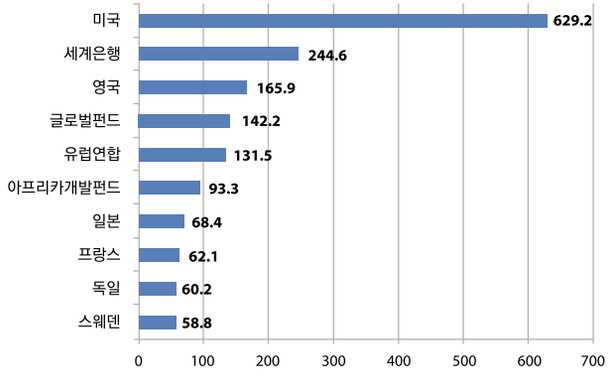
1 ) OECD, Development AID at a Glance Statistics by Region(2018)



» 우간다의 주요 ODA 공여국은 미국, 세계은행, 영국, 글로벌펀드, 유럽연합 등

〈도표 4 : 우간다 10대 ODA 공여국 현황(2017-2018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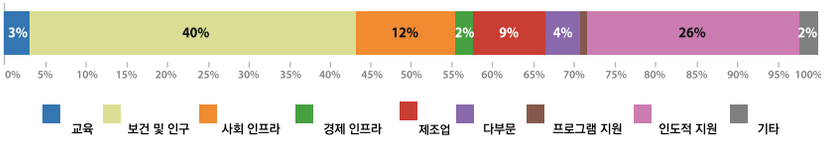



출처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검색일 2020.03.10.)

» 2017-2018년 기준 우간다의 보건 및 인구 분야가 40%로 ODA 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인도적 지원(26%), 사회 인프라(12%), 제조업(9%)가 주요 ODA 지원 분야

〈도표 5 : 양자간 ODA 분야별 지원 현황(2017-2018)〉

(단위 : %)




출처 : OECD.DAC(검색일 2020.03.10.)

## 2 | 국가개발전략 동향

» **(국가비전 2040)** 우간다 정부는 2013년 장기 국가개발계획 Vision 2040을 발표, 2040년까지 일인당 국민소득 9,500불 수준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중상위권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주력사업) ① ICT 도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② 전국 관개시설 구축, ③ Tororo 지역 인산염 산업 개발 ④ 무코, 카발레 지역 철광산업 개발, ⑤ 5개 지역거점 도시(굴루, 음발레, 캄팔라, 음바라라, 아루아) 및 5개 전략도시(호이마, 나카송골라, 포트포탈, 모로로, 진자) 개발 ⑥ 4개 국제공항 개발, ⑦ 고속열차 및 표준궤철도망 도입 ⑧ 정유소 및 송유관 인프라 구축 ⑨ 주요도시 및 전략거점을 연결하는 국가도로망 연결 ⑩ 국제적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개발센터 설립 ⑪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아야고, 이심바, 카루마, 머치슨만) 설립 ⑫ 지방거점도시에 과학기술단지 설립 ⑬ 지방거점도시에 국제 및 국가병원 설립

» **(제2차 국가개발계획)** 우간다 정부는 2015.6월 포괄적 성장과 고용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부의 창출을 주제로 2015-20년간 대상 제2차 국가개발계획을 발표

- (핵심 성장동력) ① 농업 ② 관광 ③ 에너지 ④ 인프라 ⑤ 인적자원 개발
- (분야별 달성 목표) ▲ 빈곤율(19.7%→14%), ▲ 경제성장률(5.2%→6.3%), ▲ 1인당 GDP(778불→1,039불), ▲ 총수출 대비 제품 수출 규모(5.8%→19%), ▲ 전력보급률(14%→30%) 및 1인당 전력소비(80kwh→578kwh), ▲ 포장도로(3,500km→6,000km), ▲ 관광 부문의 GDP 기여율(9%→15%), ▲ 중등학교 진학률(73%→80%), ▲ 기대수명(54→60세), ▲ 영아 사망률(1,000명당 54명→44명), ▲ 출산율(여자 1인당 6.2명→4.5명)








# 사회·문화

1. 인구 및 민족 056
2. 종 교 057
3. 관 광 058
4. 문 화 062
5. 언 론 066
6. 교 육 067
7. 보 건 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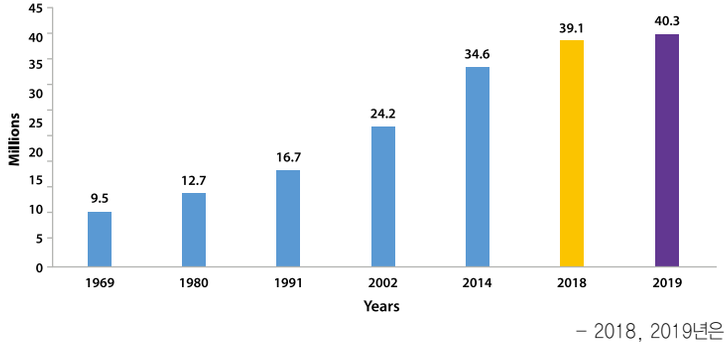
# VI

# 사회·문화

## 1 | 인구 및 민족

» 인구 동향 : 높은 출산율로 인해 1969년부터 2014년까지 인구는 연간 평균 3% 증가

〈도표 6 : 우간다 인구 증가 추이(1969-2019)〉




- 2018, 2019년은 추정치

출처 : 2019 우간다 통계연보 (Uganda Bureau of Statistics, Statistical Abstracts 2019)

- 인구 구조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로, 18세 미만 인구가 총 인구 중 55%를 차지

» **(민족의 구성)** 우간다는 세계에서 가장 인종적으로 다양한 국가 중의 하나
- 우간다에는 40개의 서로 다른 민족이 있으며 고유의 언어, 문화, 관습보유
- 점차적으로 민족·인종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있지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몇몇 민족들은 자신들만의 강한 정체성 유지
-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은 반투 계열과 함족인 수단·닐로틱 계열
- 수단계는 서부나일 지역에 거주하며 루그바라(Lugbara)와 마디(Ma'di)로 나뉨
- 피그미(Pygmy)들은 콩고와의 국경에 걸쳐 소수의 인구가 거주

» 우간다는 왕국 형태의 문명사회를 이뤘으며, 이후 연방형태의 국가로 발전
- 대표적인 왕국으로 부간다(Buganda), 부뇨로(Bunyoro), 안콜레(Ankole), 부소가(Busoga), 토로(Toro)왕국이 존재
- 가장 큰 부간다 왕국은 총 인구의 17.7%를 차지. 2002년 조사 당시 백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였으며 바냔코레(Banyankore) 10.0%, 바소가(Basoga) 8.9%, 바키가(Bakiga) 7.2%, 이테소(Iteso) 6.7%, 랑기(Langi) 6.4%, 아콜리(Acholi) 4.9%, 바기수(Bagisu) 4.8%, 루그바라(Lugbara) 부족 등으로 구성
- 중부(Central)지역에는 바간다, 동부(Eastern)지역에 바소가, 북부(Northern)에 랑기, 서부(Western)에 바냔코레가 가장 많이 거주

## 2 | 종 교

» 전체 종교 중 기독교(신교도와 구교도 및 모든 정파 포함)가 큰 비중
-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특정종교를 기반으로 한 정당 활동은 금지

- 이슬람교는 전체 13.7%로 대부분이 수니파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계는 전반적으로 시크교도 성향
- 북부, 서부나일을 중심으로 카톨릭, 동부중심으로 이슬람이 대다수
- 이외 에 지방을 중심으로 토종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며 음발레(Mbale)에는 유대인 공동체도 존재

» 타 종교와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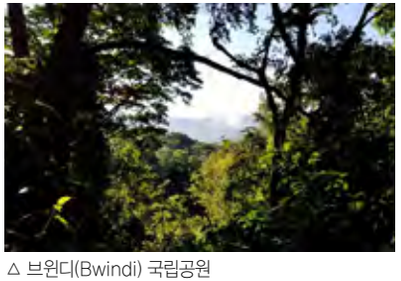
- 아프리카의 다른 토속신앙과 마찬가지로 문화와 종교, 과거와 현재, 현세와 내세의 간격이 좁은 것이 특징
- 우간다 정부는 야만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는 토속신앙에 대한 정부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기독교와 무슬림 간 평화적 공존을 위한 기구인 PROCMURA(Program for Christian and Muslim Relations in Africa)나 종교간(Inter-Religious) 위원회들의 활동으로 타 종교와의 교류를 위한 독립기구도 존재

# 3 | 관 광

## 가. 개 관

» 풍부한 동식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아프리카에서 네 번째로 높은 르웬조리 산(Mt. Rwenzori)부터 진자의 래프팅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 보유

- 카수비 부간다왕릉(Tombs of Buganda Kings at Kasubi), 브윈디 천연국립공원(Bwindi Impenetrable National Park)과 함께 르웬조리 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 브윈디(Bwindi) 국립공원

- 이 밖에도 키발레 숲의 침팬지 트래킹, 진자에 있는 나일강 상류의 래프팅 코스, 머치슨 폭포 국립공원, 퀸 엘리자베스 국립공원이 있으며 엔테베 동물원과 브윈디(Bwindi) 국립공원의 고릴라 트래킹도 유명
- 전반적으로 경제개발이 된 중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나 오랜 내전을 겪은 북부는 상대적으로 관광산업 미발달

» 우간다는 관광 산업 수익은 2,762.5조 우간다 실링으로 총 GDP의 4.3% 수준

- 관광 산업으로 늘어난 직접고용인원이 24만 명에 달해 우간다 총 고용인구의 3.6%를 차지. 같은 기간 관광산업 투자액은 699.5조 우간다 실링으로 전체 투자액의 4.6%를 차지

## 나. 주요 관광 명소

» 머치슨 국립공원 및 폭포(Murchison National Park, Murchison Falls)

- 가장 큰 규모의 국립공원이며, 가장 다채로운 볼거리가 있는 우간다 최고의 관광지
- 다양한 종류의 포유류를 볼 수 있으며, 좁은 골짜기를 통하여 굽이쳐 내려오는 환상적인 폭포가 인상적임. 공원 내 부곤도 숲은 다양한 새들과 침팬치 트래킹으로 유명한 동아프리카의 명소





△ 머치슨 국립공원

» 엘곤 산 국립공원(Mt. Elgon National Park)

-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화산으로(3500km²의 면적) 수백만년 전의 지형변화로 생성되었으며, 아프리카에서 8번째로 높은 산

### 르웬조리 산 국립공원(Mt. Rwenzori National Park)

-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케냐의 케냐산을 뒤이어 아프리카에서 세번째로 높은 산이며, 최고봉은 만년설로 덮여있어 '달의 산'이라고도 불리며 70여종의 포유류과 217종의 새들이 서식



△ 르웬조리 산 국립공원

### 엘리자베스 여왕 국립공원(Queen Elizabeth National Park)

-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이름을 땄으며, 하마, 코끼리, 표범, 사자, 침팬지 등 다양한 야생 생태계로 유명하며, 90여 종 이상의 포유류, 500여 종이 넘는 조류 서식지. 화산지형과 깊은 크레이터 호수, 전통방식의 소금생산지인 카트웨 호수 등이 존재



△ 엘리자베스 여왕 국립공원

### 부뇨니 호수(Lake Bunyonyi)

- 부뇨니는 '작은 새들의 고장' 이라는 뜻으로 수많은 종류의 새들이 서식. 8,000년 전에 용암분출이 자연댐을 만들어 호수가 생성되었다고 여겨지며, 2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빼어난 경관을 자랑



△ 부뇨니 호수

### 키데포 사파리(Kidepo Safari)

- 우간다 최북단에 있는 사파리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아니나 그



△ 키데포 사파리



만큼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한때 아프리카 12경에 선정

### 캄팔라 모스크(Kampala Central Mosque)

- 캄팔라 무슬림 사회의 중요한 장소. 1970년대 이디 아민이 기획했으나, 추방 후 리비아 카다피의 자금으로 완공되어 카다피 모스크라는 별칭



△ 캄팔라 모스크

### 카수비 왕릉(Kasubi Tombs)

- 우간다 최대 왕족인 부간다 왕족의 무덤. 1882년 무테사 왕이 이곳으로 왕궁을 옮기며 카수비로 명명. 집에 시신을 안장하지 않는 부간다의 관습과는 달리, 무테사 왕을 포함한 4명의 왕이 이 곳에 매장



△ 카수비 왕릉

### 마비라 숲(Mabira Forest)

- 300㎢를 자랑하는 우림지역으로 1932년부터 정부로부터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아 보존



△ 마비라 숲

### 나일강의 원류(Source of the Nile)

- 진자의 상징으로 남반구의 브룬디, 탄자니아 국경까지 이어지며 유역면적은 아프리카 대륙의 약 1/10을 차지하는 나일강의 원류



△ 나일강의 원류

# 4 | 문화

## 가. 전통 의복

» 전통 우간다 의상은 나뭇잎, 나무껍질, 가축·야생동물의 가죽을 통해 제작하며 성이나 민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

- 반투족의 경우 정교한 색상을 선호. 여성의 경우 어깨에서 다리까지 늘어나는 옷을 착용하며 남성의 경우 다리 사이를 가려줄 허리덮개와 어깨를 간단하게 덮을 수 있는 옷을 착용하는 것이 특징
- 반면 북부 사람들은 건조한 기후에 맞는 복장을 선호하며 문신, 구슬, 귀걸이, 목걸이와 같은 다양한 장식구나 바디페인팅이 특징
- 문신의 경우, 남부의 바냐코레와 북부의 랑기에서 뚜렷한 특징. 여성은 신체의 앞과 뒤, 남성은 등에만 문신을 하며, 오일이나 버터기름을 로션으로 사용
- 토속신앙 의식이나 신앙요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특수 분장을 한 의상을 입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옷이 특정한 마법을 지니고, 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민간요법 존재

» 무투바 나무 수피 옷감은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

- 나무껍질로 옷을 만드는 작업은 바간다인들이 먼저 시작하였으며 600년 동안 은공게(Ngonge) 부족의 장인들이 만들어 대대로 전승
- 무투바 나무의 속껍질은 우기 때 얻을 수 있으며 긴 작업 후에 이를 부드럽고 가느다란 적갈색의 직물로 제작
- 부간다 왕국 내에 거의 모든 마을에서 이와 같이 직물을 생산. 아랍상인의 면화도입과 함께, 생산량이 빠르게 줄어들었으며, 일반인들은 문화, 특정의식을 제외하고 입지 않게 됨. 현재 몇몇 마을에서 관광객을 위한 직물제작

» 각 지역별로 고유의 의상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통의상보다는 편한 캐주얼 차림의 옷을 착용

- 바간다와 부소가에서 주로 입는 전통의상인 고메시(Gomesi)는 우간다 여성이 입는 가장 대표적인 의상으로 꼽히며 국가의상을 대표하는 전통의상
- 선교사와 인도의 상인이 오기 전까지 전통방식으로 제작. 선교사들이 면화를 소개하고 인도인들이 실크를 사용하면서 옷의 디자인에 많은 변화. 고메시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도인들이 우간다에 정착한 후 만들어졌다고 전래
- 보통은 고메시라고 부르지만 부수티(Busuuti)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지방에서는 일상에서 착용하는 옷이지만 도심지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특별한 날에 옷을 입는 경우가 다수
- 옷의 가장 아랫부분이 바닥에 닿으며 어깨에 윗부분을 강조하고, 허리에 리본 모양의 띠를 감는 것이 특징

» 반투족의 전통 결혼식 때나 무슬림들의 중요한 날에 입는 칸주는 우간다 남성들이 즐겨 입는 옷으로 아랍상인이 드나들며 무슬림의 복장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설이 우세

- 정장과 같이 중요한 의상으로 고위인사들이 주요 행사에 입고 나타나는 모습이 자주 보일 정도로 즐겨 착용
- 칼라 주위에 오물레라(Omuleera)라는 장식이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타이트하지 않고 느슨한 형태로 입기에 편안한 복장


바간다, 부소가 전통의상


루오족 전통의상


바뇨로족 전통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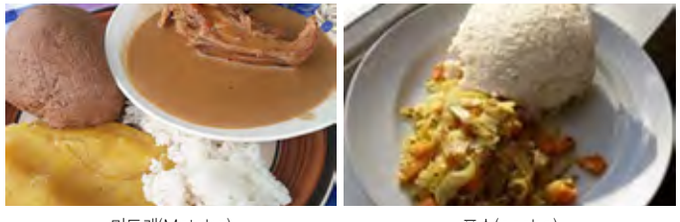

아콜리족 전통의상

- 우간다뿐만 아니라 탄자니아와 케냐에서도 많이 착용하는 복장으로 입는 특징이 각 나라마다 상이

## 나. 식문화

» 다양한 인종이 분포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국가음식 부재. 크게 영국, 아랍, 인도계의 영향을 받았으며 다양한 형태. 콩과 고기가 위주인 녹말재료 음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류층에서 주로 먹는 코스요리도 존재

- 땅콩, 콩, 고기로 만든 수프를 주식으로 하며, 옥수수를 갈아 반죽한 포쇼(posho), 바나나를 으깨어 만든 마토케(Matoke)가 주요 중산층 사람들 사이에서 섭취
- 다양한 부족들이 고유한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감자, 고구마, 바나나 및 카사바와 같은 열대과일을 이용
- 널리 애용되는 육류로 소, 양, 닭, 염소고기가 있지만 돼지고기는 주식재료로 미사용
- 무초모(Muchomo)는 꼬치형태의 육류음식으로 생강과 마늘 외에 다양한 야채를 꼬챙이에 넣어 먹음. 차파티(Chapati) 위에 오믈렛을 얹어 돌돌 말은 롤렉스(Rolex, "roll-eggs"에서 유래)도 현지인들에게 인기있는 음식
- 와라기(Waragi)라고 불리는 바나나 발효주를 많이 애용하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술을 즐기는 편임. 우간다의 인구당 알코올 섭취량은 아프리카에서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잘못된 밀주 제조가 사회문제로 부각



마토케(Matoke)



포쇼(posho)



무초모(Muchomo)



롤렉스(Rolex)

△ 우간다 전통 음식

## 다. 음 악

» 동아프리카의 음악은 크게 반투계열을 중심으로 구분하며, 우간다 남부와 서부의 왕국들로 이루어진 대호수지역 및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북부를 반투 남부의 공통된 음악 권역으로 분류

» 반대로 반투 북부는 남동부 수단과 남부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한 닐로틱 혹은 닐로틱 계열의 언어를 쓰는 다수의 유목민족이 이슬람화 되면서 음악연주에 필요한 다양한 악기를 이용

» 현대 음악은 자메이카의 레게, 힙합 등 여러 나라에서 영향을 받은 팝음악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며, 특히 뮤직비디오는 현대 우간다 음악 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

- 8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뮤직비디오가 출시되었을 때 우간다에서는 음악과 관련 산업 기반이 전무하였지만 지금은 거의 우간다에서 출시되는 모든 음악에 뮤직비디오 제작

## 라. 스포츠

» 우간다의 행정부처인 우간다 교육·체육부(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

- 우간다 정부는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우간다 인구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포츠를 이용

» 우간다 축구 협회인 FUFA(Federation of Uganda Football Associations) 하에 있는 우간다 슈퍼 리그(Uganda Super League)는 총 16개의 팀으로 구성
- 축구리그는 우간다에서 가장 큰 리그 중 하나로 많은 인기
- 대부분의 팀은 캄팔라에 홈을 두고 있지만 그 외에 진자(Jinja), 부이크웨(Buikwe), 봄보(Bombo), 엔테베(Entebbe)에도 홈팀 존재
- 우간다 슈퍼리그는 2010년에 창립됐지만 FUFA 하에 리그 운영은 독립 이후인 1962년부터 계속 지속
- 또한 TV 중계를 통해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내고 아프리카와 전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

» 우간다는 강세를 나타내는 스포츠 종목이 없으나 2012년 런던올림픽 마라톤에서 스티븐 키프로티치(Stephen Kiprotich)가 우승하면서 마라톤의 인기 상승중

» 이 외에도 야구, 네트볼, 배구, 골프가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이며,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축구 경기를 시청하여 관련 스포츠복권을 구매

## 5 | 언론

» 우간다는 신문 및 TV 매체 내용에 정부 및 언론담당기관의 큰 간섭은 없으며, 언론인들의 정보 접근성도 확대되는 추세였으나, 최근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나이 제한 철폐 관련, 헌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비판적 반응 및 반정부적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감시 및 통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우간다의 주요 언론 매체
- New Vision : 우간다 최대 미디어 그룹인 Vision Group[1] 발행 일간지로 친정부 성향의 보도를 하는 것으로 평가
- Daily Monitor : 야당 성향의 일간지로서, 1994년에 The Monitor로 창간되었으며, 2005년 Daily Monitor로 재창간. NTV, The East African 등과 함께 케냐에 근거지를 둔 Nation Media Group 언론사 중 하나
- UBC : 2005년 11월 출범했으며, UBC TV, Star TV와 5개의 라디오 방송을 소유하고 있음. 공영방송으로 초기에는 수신료를 받았으나, 무세베니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재 별도 수신료 미부과
- NTV : Nation Media Group의 자회사 중 하나로 별도의 수신료 미부과[2]

## 6 | 교육

» 교육체계는 초등교육 7년, 중등교육 4년(O-Level), 고등교육 2년(A-Level), 대학교육 3년~5년 과정. 각 교육단계마다 교육부 주관 시험을 치르고 동 성적은 상위학교 입학의 기준이 되며, 기준 미달 시 1년 뒤 재시험 가능

» 정부는 1997년 보편적 초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무상교육 정책에 따른 입학률 증가가 학교 시설 및 교육의 질 향상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쳐 대다수 학부모들은 공립학교보다 학비를 납부하는 사립학교를 선호

» 청년층의 실업문제 해결과 국가 경제 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 시장의 수요에 적합

1 ) 우간다 정부가 Vision Group의 지분의 53.3%를 소유
2 ) 이외에도 약 200여개의 소규모 개인 라디오 방송 및 TV 방송국이 운영 중

한 기술을 갖춘 노동력 양성을 위해 질적 기술직업 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인 'Skilling Uganda' 정책을 실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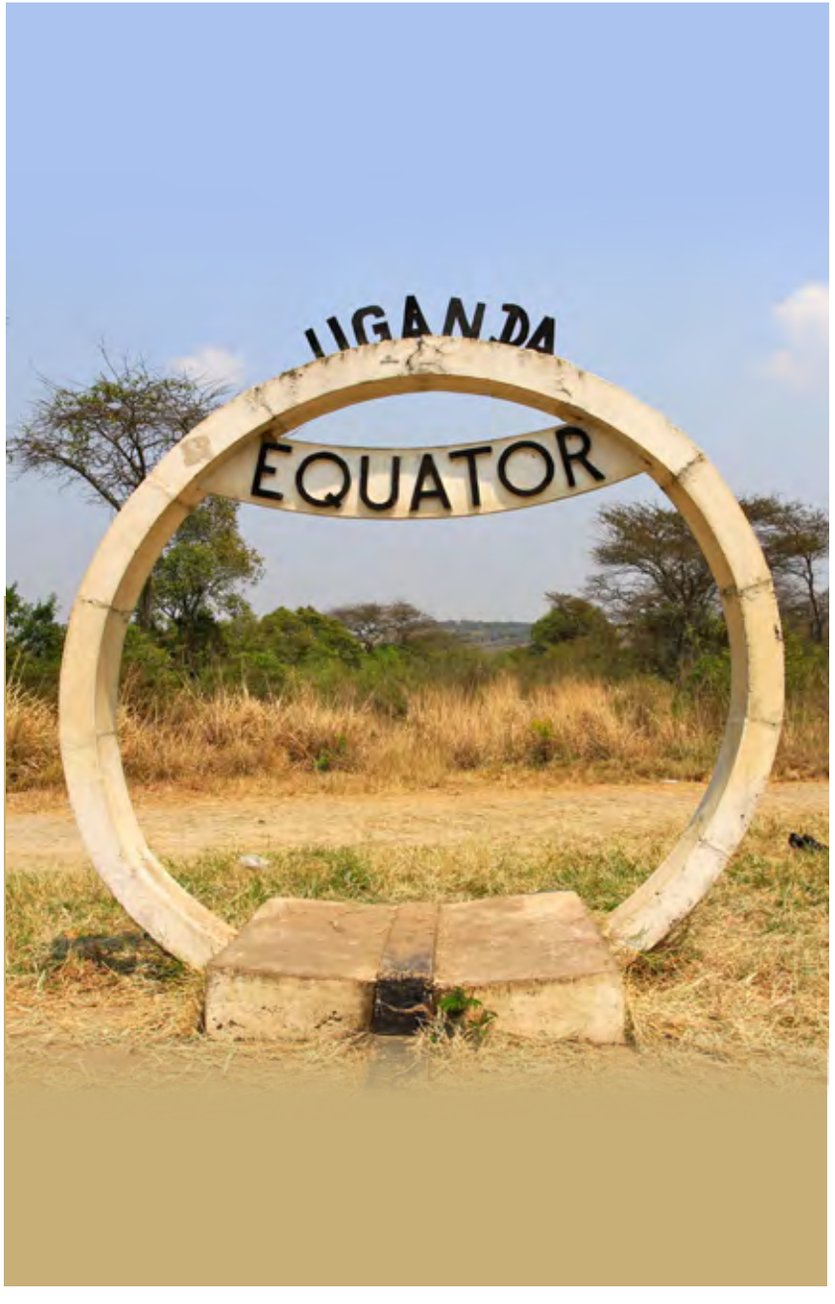
- 2017년 인구성장률이 3.2%(2017년 세계 평균 1.12%)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구 성장이 빠른 나라 중 하나로 15-24세 청년층이 전체 인구의 21.1%이며, 급증하는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주요 사회적 문제로 대두

## 6 | 보건

» 정부는 국가개발계획 2040(Vision 2040)과 제2차 국가보건계획(2015/16-2019/20)을 통해 국가보건 의료체계 강화, 보건의료 서비스 질적 제고, 보건인프라 구축, 가족계획, 산모·신생아·아동 사망률 감소, 보건인력 개발, HIV·말라리아 예방 등을 우선순위로 제시하였으나, 인프라·에너지 개발 분야에 비해 정부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저조

- 2017/18 회계연도 정부 보건예산은 여타 국내체납금 및 인프라·에너지 사업 관련 지출 확대로 인해 지난 회계연도 대비 29.6% 감소한 1,823조 실링(약 5억 달러, 총예산대비 5.7%)로 책정되었으며, 보건·의료 사업은 주로 외부 원조에 의존하여 추진중
- 평균 수명은 54.93년(세계 211위)으로 아프리카 평균치보다 낮으며, HIV/AIDS 발병률이 1990년 15%에 비해 2015년 7.25%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6년 AIDS로 인한 사망자수가 28,000명에 이르는 등, 말라리아, HIV/AIDS, 결핵 등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음

» 정부의 보건 분야 지출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국가 운영 의료시설에 42%의 인력이 결원 상태로,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 인프라 확충이 주요 과제








#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정무 072
2. 경제통상 075
3. 개발협력 076
4. 재외동포현황 081

# VII
# 우리나라와의 관계

## 1 | 정 무

### 가. 개 관

» 1963.3.26 외교관계 수립

» 2016.5월 한국 대통령 최초 우간다 방문 등 최근 교류 활성화
- 2013.5월 수교 50주년 계기 양국 최초 정상회담(서울), 2014.9월 뉴욕 유엔총회 계기 후속 정상회담, 2016.5월 한국 대통령의 최초 우간다 국빈 방문, 2016.10월 제1차 한-우 고위급 정책협의회 실시 등 양국 간 협력 관계가 확대·강화

» 우간다의 한국에 대한 인식
- 비동맹 중립주의를 표방하고, 남북한 동시수교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외세 간섭 없는 남북한 당사자 간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을 지지
- 한국이 북한과는 달리 정치·경제 발전을 성취하며,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개발경험을 전수받기를 희망
- 무세베니 대통령은 2017.9월 제 72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시 한반도 긴장 상황 해소를 위해서는 외세의 개입 없이 남북한이 통일을 협의해야 한다면서, 통일 한국은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될 것으로 평가

» 한국의 경제 발전 계획 실행 및 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촌 근대화에 관심이 많으며, 한국 기업과의 경제 협력, 교역 확대, 한국기업의 대우간다 투자 등을 희망
- 무세베니 대통령은 국정 연설 시 한국을 개발 국가의 예로 언급하며, 우간다 국가개발계획에도 한국의 개발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을 규정

» 2011.12월 한국 대사관 재개설과 함께 양국 간 정치, 경제, 개발협력 분야 협력이 활성화
- 2013.05월 무세베니 대통령의 방한 계기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후 2014.9월 유엔 총회 계기 뉴욕에서 후속 정상회담 개최
- 2016.05월 박근혜 前 대통령 방우 계기 양국 정상회담 개최

### 나. 고위급 교류

» 2013.5월 수교 50주년 계기 양국 최초 정상회담(서울), 2014.9월 뉴욕 유엔총회 계기 후속 정상회담, 2016.5월 한국 대통령의 최초 우간다 국빈 방문, 2016.10월 제1차 한-우 고위급 정책협의회 실시 등 양국 간 협력 관계가 확대·강화
- 2013.05월 양국 수교 50주년 계기 최초 정상회담(서울) 개최
- 2014.09월 뉴욕 유엔총회 계기 후속 정상회담 개최
- 2016.05월 한국 대통령 최초 우간다 국빈 방문 실시

» 2016.5월 대통령 국빈 방문시 우간다 측의 우-북 군경협력 단절(disengage) 선언이 있었으며, 외교부간 협력·ICT 협력·과학기술 협력· 농업협력·국방협력 MOU

서명(총 19건 체결) 등 정무,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 진전

-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제1차 한-우간다 고위급 정책협의회가 2016.10월 서울에서 임성남 제1차관-제임스 무구메 외교부 사무차관 간 개최
- 2016년 5월 박근혜 전대통령 방문 계기 제1차 한-우간다 비즈니스 포럼 개최

## 다. 외교관계 약사

» 1963.03. 외교관계 수립

» 1963.04. 주 우간다 대사관 개설

» 1984.09. 오보테 정부, 한국 대사 추방[1)]

» 1986.10. 무세베니 정부, 한국 대사 접수

» 1994.10. 주우간다 대사관 폐쇄

» 1995.05.07. 권순대 주케냐대사 신임장 제정(이후 주케냐대사가 겸임)

» 2011.05.18. 주케냐캄팔라 분관 설립, 박종대 대사대리 무임

» 2011.12.30. 주우간다 대사관 승격(공관장 : 박종대 대사대리)

» 2014.07.19. 박종대 주우간다대사 신임장 제정

1) 1984.09.우간다 Obote 정부가 아국 언론의 비우호적인 보도를 이유로 주 우간다 대사를 추방한 이래 2년여 간 공석이었다가, 1986.1월 무세베니 신정부 수립 후 1986.10. 정보영 대사가 신임장을 제정함으로써 양국관계 정상화



## 라. 양국간 정상 외교

» 2013.05.29.-31. 무세베니 대통령 한-우간다 수교 50주년 계기 공식 방한하여 최초로 정상회담 개최

» 2014.09.23. 유엔총회 계기 후속 정상회담 개최

» 2016.05.28.-30. 박근혜 대통령 우간다 국빈 방문, 양국 정상회담 개최

# 2 | 경제통상

## 가. 교 역

» 한-우간다 간 교역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2,525만불 수준, 1,263만불 무역 흑자 기록

**한-우간다 교역 현황** (단위 : 천불)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교역액 | 22,374 | 35,639 | 33,594 | 25,173 | 22,979 | 25,250 |
| 수출 | 15,413 | 15,100 | 20,153 | 17,374 | 14,973 | 18,943 |
| 수입 | 6,961 | 20,539 | 13,441 | 7,799 | 8,006 | 6,307 |
| 수지 | 8,453 | * 5,439 | 6,712 | 9,575 | 6,967 | 12,636 |

※ 對우간다 주요 수출 품목은 화학공업생산품, 인조섬유, 의료용품, 보일러 등 기계류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커피, 연초, 귀금속, 수목 등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나. 투 자

» 2011-2018년간 누적 투자액은 1,028만불

- (對우간다 투자 분야) 농·임·어업(450만불), 제조업(390만불) 등

## 다. 주요 수주사업

» 최근 수주 주요 프로젝트

- (한국도로공사, 경동엔지니어링) 우간다 고속도로 개발 마스터플랜(51억원, 2018.4월-2019.10월) : 중장기 고속도로망 계획, 도로개발 우선순위 및 실행계획 수립 등
- (영진종합건설) 우간다 토로로 중앙시장 건설공사(765.6백만불, 2018.1.31.-2020.1.31.) : 아프리카개발은행 재원
- (건화엔지니어링) 8개구간 도로 타당성 및 실시설계(184만불, 2018.7월-2019.7월)

# 3 | 개발협력

## 가. 개 요

» 우간다는 2011년 한국 정부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130여개 지원국 중 선정한 26개 중점협력국(2012~2015년)으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의 24개 중점협력대상국에도 재선정되면서, 양국 간 협력 중요성이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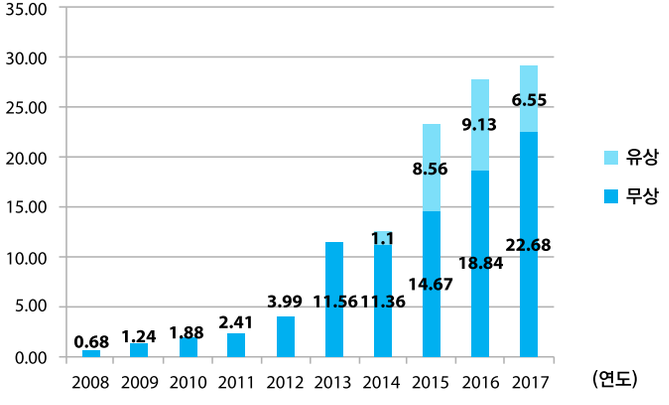
- 2011년 제 1기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 따라 수립된 중점 협력분야는 농업, ICT, 경제 인프라 분야였으며, 2016년 제 2기 국가협력전략(CPS)에 따라 수립된 중점 협력분야는 지역개발, 교육 보건위생으로 한국 정부의 유무상 대외원조 자금이 해당 분야에 집중 투자(전체 지원금의 약 70% 수준)
- 2015년 선정 24개국 중 아프리카는 7개국으로 에티오피아, 가나, 르완다, 모잠비크, 세네갈, 우간다, 탄자니아가 선정(제 2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 2016-2020년간 중점협력대상국으로서 ▲ 1991-2017년간 총 8,224만불을 지원 (무상 4,874만불 / 유상 3,350만불)

- ▲ 국제협력단(KOICA), ▲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 국제의료협력재단(KOFIH)이 주재중
- 민간에서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가나안농군학교를 비롯한 각종 선교 및 시민단체 등이 활동 중

〈도표 8 : 한국 정부의 對우간다 유무상원조 지원실적 추이(2008-2017)〉

(단위:백만 달러)




※ 출처 : OECD.Stat(검색일 2020.03.05.)

## 나. 양자 협력 성과

» 우리 정부는 우간다 정부의 국가개발비전(Uganda Vision 2040) 및 제2기 국가개발

계획(NDP, National Development Plan II) 달성을 對우간다 국가협력 전략(16-20)상 지원 목표로 설정(Korea'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towards Uganda, 2016-2020)

- 중점 협력분야는 농촌개발, 교육, 보건이며, ▲ 농업 역량 강화 및 지역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기초소득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인적 자원 배양, ▲ 모자보건, 소녀보건 및 지역보건 증진을 통한 인적 지원 강화를 추진 중

»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양자 유무상 원조 지원은 2013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폭 증가

- 1986년 11월, 한국-우간다 의료협력 협정 체결
- 2012년 10월, 한국-우간다 정부 간 무상원조기본협정에 서명
- 1987년부터 2017년까지, 유무상 통합 약 126.13백만 달러 규모 지원(무상원조 약 93.91백만 달러, 유상원조 약 32.22백만 달러)
  - 전체 수원국 중 25위(무상원조는 20위, 유상원조는 34위) 해당
  -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에티오피아 등 3개국) 이후, 이상득 특사를 우간다에 파견하였으며, 2013년 양자 정상회담 개최, 2011년과 2015년 한국 정부의 중점협력국으로 재차 지정되면서, 우간다에 대한 프로젝트형 지원 증가

## 다. 주요 유무상 지원 성과

» 최근 KOICA 수행 주요 무상원조 사업

**KOICA 對우간다 주요 무상원조 사업**

| 사업 유형 | 사업 내용 (사업기간/지원규모) |
|---|---|
| 프로젝트(7건) | 식수개발 장비지원사업 ('07/34.33만 달러) |
| | 직업훈련원 건립사업('11-'18/476.84만 달러) |
| | 농업지도자연수원 건립사업('11-'17/474.05만 달러) |
| | 과일가공공장 건립사업('11-'19/749.61만 달러) |
| | 엔테베 국제공항 시스템 개선사업('14-'20/544.99만 달러 ) |
| |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건립사업('15-'18/184.57만 달러 지원) |
| | 이강가 카물리 지역아웃리치를 통한 모자보건 개선 사업 ('16-'18/313.51만 달러 지원) |
| 개발컨설팅(1건) | 농가공 및 마케팅 전략수립사업('13-'17/291.93만 달러) |
| 연수생초청 | 728명 초청 (904.97만 달러) |
| 해외봉사단 | 517명 파견(1036.1만 달러) |
| 민관협력 | 31건 (737.24만 달러) |

» 최근 주요 유상원조(EDCF) 사업

**EDCF 對우간다 주요 유상원조 사업**

| 사업 유형 | 사업 내용 (사업기간/지원규모) | 비고 |
|---|---|---|
| 프로젝트 (2건) | 우간다 지방전화망 확충사업 ('91-'98/7.5백만 달러) | 원리금 상환 중 |
| | 우간다 교육개선사업* ('10-'19/26.8백만 달러) * AfDB 협조융자 사업 | 최종 집행 완료 |

- 2020년 신규 유상원조 사업으로 ▲ 우간다 ICT 농업개발프로그램(35백만불, 차관신청서 접수중) 및 ▲ 우간다 교육개선사업 2차(지원규모 미정, PPA 신청서 징구)을 추진할 계획

» 빈곤퇴치기여금 사업

- 2015년부터, KOICA 우간다 사무소는 1천6백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통해 제 2기 KIMCHI Fund를 실행하며, 유니세프(UNICEF),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등과의 민관협력 형태의 사업을 추진

**우간다 빈곤퇴치기여금사업 현황(2020년)**

| 수행기관 | 팀앤팀 | 월드비전 |
|---|---|---|
| 사업총액 | 3,552백만원 | 300만 달러 |
| 사업지역 | 아루아(Arua) | 마유게(Mayuge) |
| 사업목적 | Wash 환경 개선 및 보건 위생 증진을 통한 수인성 질환 감소 | 통합적 접근을 통한 소외열대질환 퇴치 |

» 새마을 운동 사업

- 자체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마을이 150개가 넘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새마을 관련 개발협력은 ▲ KOICA(시범마을 건립사업 및 농촌지도자연수사업), ▲ 새마을중앙회, ▲ 가나안 등을 통하여 진행중
- 새마을중앙회는 2009년부터 우간다에서 새마을 교육·시범마을 사업을 추진

## 마. 민간/비영리기구의 투자와 사회적기업

» 교육시설의 건립과 인재 양성

- 1999년 기아대책은 수도 캄팔라(Kampala)에서 북동쪽으로 약 300㎞ 떨어진 시골마을인 쿠미(Kumi) 지역에 대학교를 설립
- 전체 학생규모가 7~800명 규모인 쿠미대학교(Kumi University)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두 갖추고 있으며, 현재는 문과계열 학과만 갖추고 있으나 우간다의 낙후 지역에 고등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인재양성에 노력
- 이 외에, 수도 캄팔라에 한국인 부부 교수가 아프리카음악원(African Institute of Music)을 설립하여, 우간다 학생들에게 예체능분야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간다 최북단인 굴루(Gulu)와 골리(Golly) 지역에도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 등을 건립하여 우간다 아동교육 및 인재 양성에 이바지



» 한국인 청년 기업가의 사회적기업 활동

- 제리백(JerryBag) : 핀란드에서 디자인 유학중인 한국인 청년이 우간다에 설립한 글로벌 사회적 기업으로, 아프리카에서 물통으로 사용하는 제리캔을 모티브로 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가방을 만들고 있으며, 우간다 유명 쇼핑몰과 한국의 공정마켓 등에서 판매중
- 스파우츠(SPOUTS) : 하버드대학교 출신 2명의 재미교포 청년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식수문제에 착안하여, 우간다 현지의 점토를 이용해 정수 필터를 제작하고, 정수한 물을 마시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지닌 필터를 제작하여 판매.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현지화된 환경에서 모든 재료 및 자재를 우간다에서 조달하고, 현지 마을 주민들에게 사용법을 보급하는 등 보건상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주력



△ 우간다 내 사회적기업 활동

출처 : https://jerrybag.com/ , https://spouts.org/(검색일 2020.03.10.)

## 4 | 재외동포현황

» 재외동포 현황

- 우간다 내 체류 중인 교민은 ▲ 선교사, ▲ NGO, ▲ 기타사업가 등이며 선교사 비중이 약 60% 이상
- 2018년 말 기준, 우간다에 거주 및 체류하는 우리 동포 수는 약 480여명으로 대부분 캄팔라, 와키소 등에 거주중






# 북한과의 관계

1. 북한과의 관계 084

# VIII

# 북한과의 관계

## 1 | 북한과의 관계

» 우간다는 과거 북한과 군사 분야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북한의 입장에서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주요 우방국

- 북한은 과거 오보테(1966-1971, 1980-1985간 대통령 재임) 정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무세베니 대통령 집권(1986.1) 이후에도 특히 경찰, 군사, 의료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유지
  - 무세베니 대통령은 집권 이후 3차례(1987, 1990, 1992) 북한을 방문

» 우간다와 북한간 협력은 ▲ 북한이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의 내전과 독립 및 비동맹 연대를 지원해 온 정치/사상/군사적 측면이 있고, ▲ 우간다의 입장에서는 정권 안보 유지를 위한 군사력 강화와 북한의 저비용이라는 군사/경제적 측면이 연관

- 특히, 우간다는 북한과 같이 노후화된 무기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정비 및 신형 장비 도입 시 쉽게 호환 및 기술협력이 가능

» 2016.5월 박근혜 대통령의 우간다 방문시 무세베니 대통령이 북한과의 모든 군경 협력 중단을 발표한 이래, 경찰교관, 군사교관단 등 철수 등 시행

» 외교관계 약사

- 1963.3. 외교관계 수립
- 1964.1. 외교관계 단절
- 1972.7. 외교관계 재수립
- 1972.12. 대사관 개설
- 2017.11 정동학 대사 신임장 제정




2020

# 우간다공화국 개황

Republic of Uganda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275-14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